보도참고자료

www.pop119.com에서 download 가능

국제포경수술정보교육기관(NOCIRC; UN 등록 NGO) 주최 국제 심포지움 인권상 수상

국제 심포지움 인권상 수상 이유:

(1) 영국 비뇨기학회지 논문을 통하여 한국의 비정상적 포경수술 현황을 세계에 알림.

(2) 국내 최초의 포경수술 전문 웹사이트 (www.pop119.com) 운영을 통하여 포경수술에 대한 정확한 교육에 공헌하는 동시에 영문 웹사이트 운영을 통해 '비극적' 한국 실정을 세계에 알림.

(3) 초중고 교사들에게 포경수술에 관한 교육을 실행

(4) 세계는 한국의 포경수술에 관한 현황을 접함으로써 다시 한번 보호받아야하는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경악하게 되었으며 포경수술이 의학적 이유를 빌미로 한 통과의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1999년 미국 소아과학회는 포경수술의 무용론을 공식 표명하게 되었다.

국제 심포지움 인권상 수상자중 대표인물

(1) 1991년 SanFrancisco 학회 수상자 **벤저민 스포크** 박사; 미국 소아과 의사로 'Baby and Child Care (육아책) '라는 5천만권 이상의 발행부수를 기록한 책의 저자. 이 책은 미국에서 성경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책으로 꼽힘. 2차 세계 대전후 의 '미국 baby boomers' 세대를 키운 의사'로 평가받음. 처음에는 포경수술에 의 학 적인 이득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그후 포경수술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하여 1980년대에 의견을 수정하여 대부분의 포경수술에는 의학적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의견번복; 미국 포경수술 비율의 감소에 기여. 1991년의 수상 연설에서 "내가 다시 아들을 낳는다면 그의 작은 고추를 그냥 내버려 두겠다"고 언급.

(2) 1998년 Oxford 학회 수상자 **마가렛 소머빌** 박사: 캐나다 맥길대학 교수 윤리학자이자 법학자. 남아포경수술이 여성할례에 비근한 윤리/인권문제라고 주장.

Oxford 수상연설에서 "의학적 이유가 없는 포경수술은 범죄적인 행위이다", "우리의 의무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

시드니 학회 참석자: 의사, 법학자, 변호사, 간호사, 공중보건전문가, 심리학자, 생물학자, 역사학자, 성의학자, 교육학자, 방송인, 사회사업가, PD, 기자, 체육학자 및 유대인 의사, 윤리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 한국, 이집트, 이스라엘, 미국, 호주, 영국, 뉴질랜드, 이태리, 스웨덴, 버뮤다, 벨기에, 아일랜드, 우간다, 브라질등 여러 국가 전문가들의 포럼.

시드니 심포지움 수상 연설:

(1) 45분에 걸친 초청 강연; '**100%가 넘는 포경수술 비율: 짧고도 괴이한 한국 포경수술의 역사**'

(2) 12월 8일 4: 45 pm (호주시간) 시드니 대학에서 공동 강연

(3) Plenum Publishers(뉴욕, 보스턴, 런던, 모스코바) 출판 예정인 "21세기 인권보호에 대한 제언 (Safeguarding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21st Century)" 의 한 Chapter로 채택

수상 연설 내용

(1) 세계 포경수술의 대부분은 이슬람 문화권에서 종교적 이유로 행하여지며 이슬람 교를 제외한 세계 포경수술 비율은 약 5%이며, 이슬람교를 포함하더라도 포경수술의 비율은 약 20%이다 (포경수술 지도 참조).

(2) 지금까지 대대적인 의학적 포경수술은 대부분 미국에서 행하여진다고 믿어졌다. 현재 미국에서도 포경수술 비율은 현저히 줄어드는 추세이다.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의 영어문화권에서는 한때 미국의 영향으로 포경수술이 유행했으나 최근에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캐나다 퀘벡의 포경수술 비율감소 참조).

(3) 현재 **필리핀과 남한**만이 의학적 이유라는 명목으로 초중고생 및 성인에게 대대적인 포경수술을 수행하고 있다. 남한의 포경수술 비율은 1950년 0.1%였으나 현재 20대 남성은 약 85%의 포경수술 비율을 보인다. 고등학생의 경우 90% 이상이라는 경악할만한 비율을 보이고 있어 이슬람국가 및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단연 **세계최고의 포경수술 비율**을 자랑한다. 현재 남한의 포경수술은 의학적인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 **통과의례화**되었다. 놀랍게도 남한에서는 포경수술을 해야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하냐가 문제가 되어버렸다.

(4) 필리핀의 경우 미국의 식민지였으며, 이슬람 교도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리핀은 미국의 신생아 '의학적 포경수술'과 이슬람교의 '사춘기 포경수술'을 조합했다고도 볼 수 있다. 남한의 경우 미국의 영향이 컸던 것이 사실이겠으나, 필리핀 식의 포경수술로 변형된 것은 이해하기가 매우 힘든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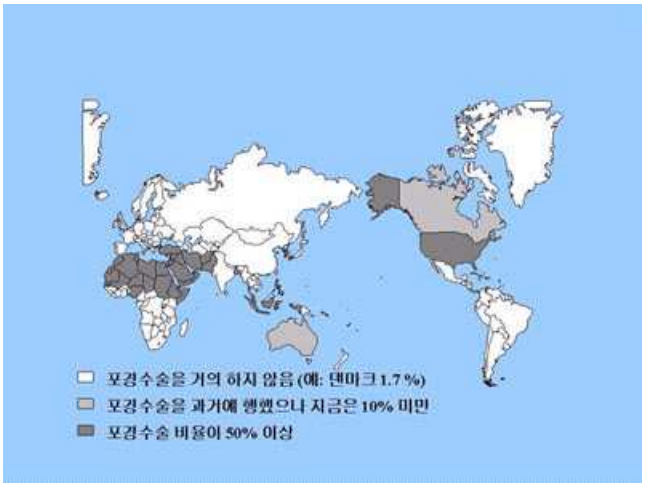
(5) 남한의 연간 포경수술 숫자는 지난 20년간 남아 출생수보다도 훨씬 높았다. 결국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의 3세대가 동시대에 포경수술을 받은 놀라운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6) 한국문화는 유교문화권 중 신체보전에 관하여 가장 보수적이었으다 ('신체발부는 수지부모').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짧은 시간동안 의학적 수술이 통과의례화된 배경에는 **포경수술이라는 외래문화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이해의 전무**가 자리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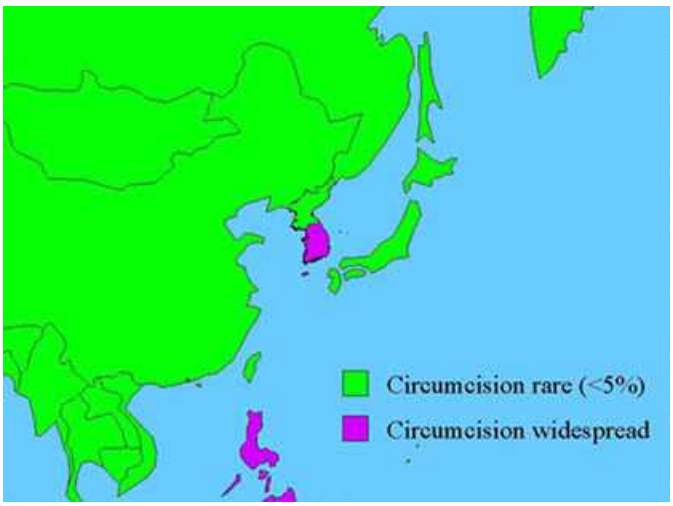
(7) 미국에서 매우 부분적으로 언급되던 '**포경수술이 성생활을 증진시킨다**'는 설은 이미 예전에 낭설로 굳어졌으며 최근 연구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성적 만족도를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나왔다. 100년전에 미국에서 극히 일부계층에서 유행하던 이설은 재미있게도 남한에서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설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미신은 포경수술을 남한에서 통과의례화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8) 일반인 및 의료관계자들은 **포경의 정의**에 대한 상식이 매우 부족하여(첨부자료 참고) 포경을 포피, 포경수술, 포피의 존재자체 등과 혼동한다. 교육의 부재가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
(9) 전세계적으로 이미 1960년대부터 포경수술이 자궁암, 음경암 등을 예방한다는 설은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완전히 결론지어졌다 (1996년 미국 암학회 공개서한 참조; 첨부). 반면 남한의 대중매체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10) 남한의 매체에서는 종종 외국의 연구결과 (요도염, HIV등 관련)를 예로 들면서 '전국민의 포경수술'을 주장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싣는다. 포경수술 관련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해석은 세계적 추세, 주변국 상황, 문화적 배경등을 이해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 같다.
(11) 본 수상자들은 내년 정도 남한의 포경수술 역사, 포경수술 관련 상식에 대한 남한 의사들의 이해도 등을 중심으로 한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12) 포경수술은 외과수술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작용을 동반할 수 밖에 없다. 한 예로 미국 암학회는 "게다가 음경암으로 인한 사망 비율이 포경수술로 인한 사망 비율과 비슷한 정도로 낮은 것을 보면 포경수술을 음경암 방지 방법으로 선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에 남한에서는 포경수술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13) 포경수술의 이득에 대한 강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본 수상자들의 조사에 응한 적지않은 성인들이 포경수술 후의 발기시 고통, 성감의 감퇴, 성욕의 감퇴등을 호소하였다. 포경수술과 섹스의 관계, 포경수술의 부작용 등의 연구에 남한은 매우 좋은 장을 제공할 수 있다.
(14) 수상자들은 현재 포경수술에 대한 남한 최초의 website를 운영하고 있으며, 책 출판도 준비중이다.
(15) 희망적인 것은 고등학생, 대학생들 80% 이상이 "만일 일본, 유럽등의 포경수술 비율이 그토록 낮은 것을 알았다면 포경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답한 것이다. 교육을 통하여 현재의 비정상적 남한 상황은 고쳐질 수 있다.
(16) 통일 될 경우 북한의 남성들이 남한의 의사들에 의하여 대대적 포경수술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것은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막아야 한다.

포경수술로 본 세계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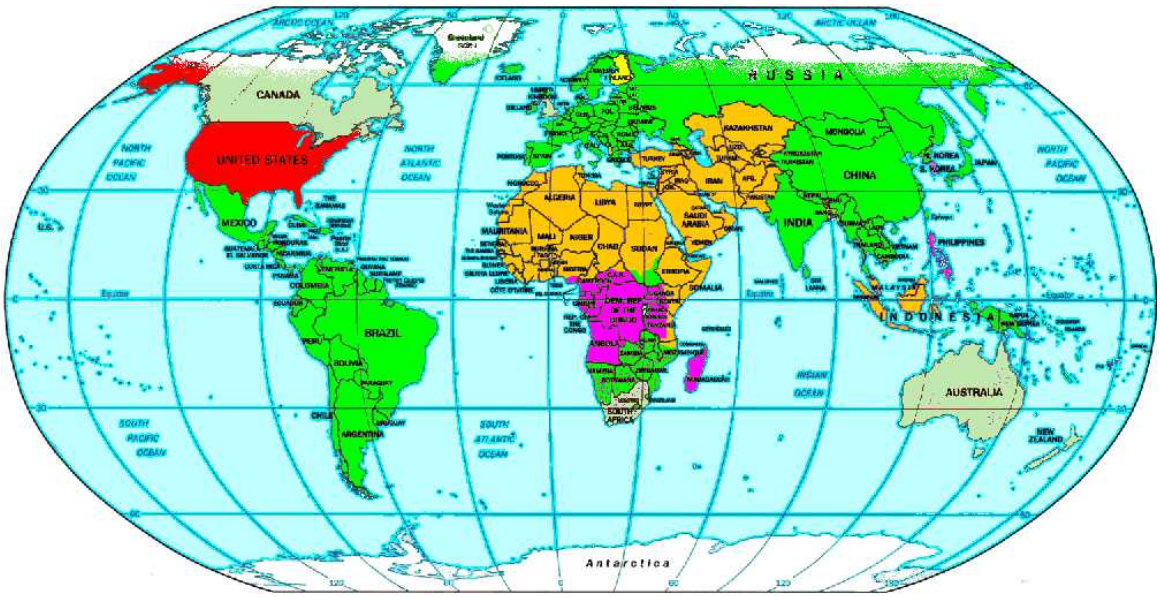


동양권의 포경수술 (남한과 필리핀에 국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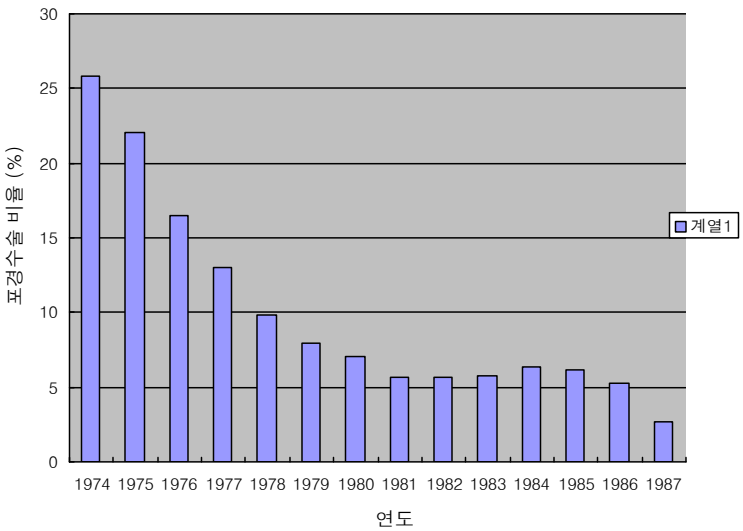


뉴질랜드 웹에서 보고한 세계포경수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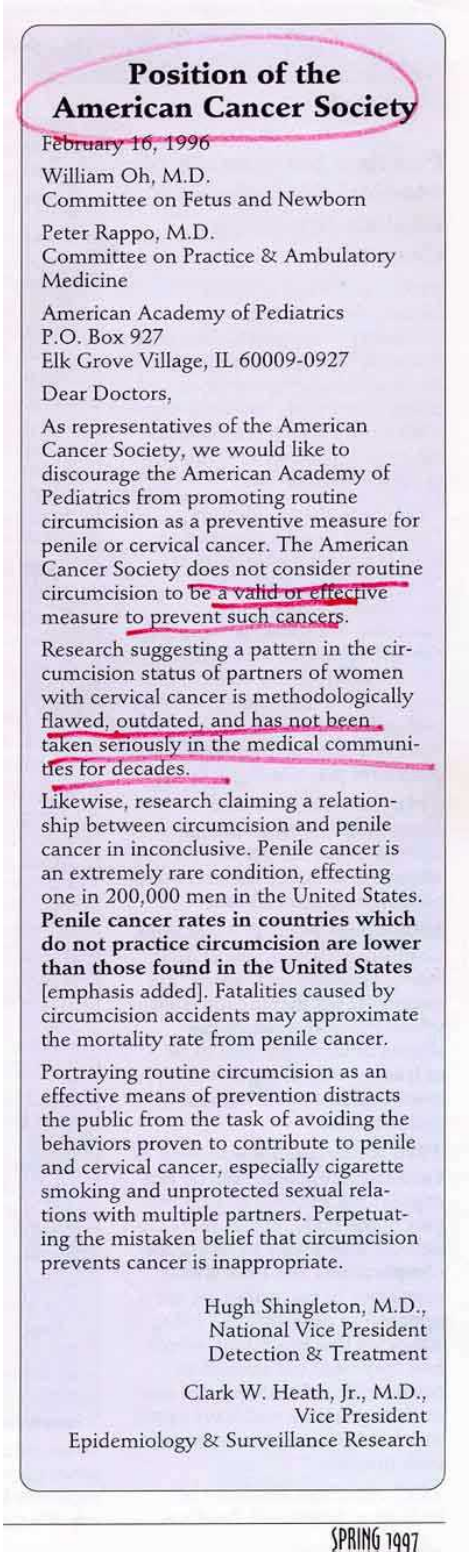
(남한과 필리핀이 포함됨)



캐나다 퀘벡 포경수술 비율



미국 암학회 (American Cancer Society) 공개서한



Position of the American Cancer Society

February 16, 1996

William Oh, M.D.
Committee on Fetus and Newborn

Peter Rappo, M.D.
Committee on Practice & Ambulatory Medicin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P.O. Box 927
Elk Grove Village, IL 60009-0927

Dear Doctors,

As representatives of the American Cancer Society, we would like to discourage 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from promoting routine circumcision as a preventive measure for penile or cervical cancer. The American Cancer Society does not consider routine circumcision to be a valid or effective measure to prevent such cancers.

Research suggesting a pattern in the circumcision status of partners of women with cervical cancer is methodologically flawed, outdated, and has not been taken seriously in the medical communities for decades.

Likewise, research claiming a relationship between circumcision and penile cancer in inconclusive. Penile cancer is an extremely rare condition, effecting one in 200,000 men in the United States. **Penile cancer rates in countries which do not practice circumcision are lower than those found in the United States** [emphasis added]. Fatalities caused by circumcision accidents may approximate the mortality rate from penile cancer.

Portraying routine circumcision as an effective means of prevention distracts the public from the task of avoiding the behaviors proven to contribute to penile and cervical cancer, especially cigarette smoking and unprotected sexual relations with multiple partners. Perpetuating the mistaken belief that circumcision prevents cancer is inappropriate.

Hugh Shingleton, M.D.,
National Vice President
Detection & Treatment

Clark W. Heath, Jr., M.D.,
Vice President
Epidemiology & Surveillance Research

SPRING 1997

미국 암학회의 대표로서 미국 소아과 의학회에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궁암과 음경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포경수술을 시술하는 것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미국 암의학회는 포경수술이 자궁암이나 음경암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포경수술과 자궁암의 관계를 언급해온 과거의 연구들은 연구 방법론에서부터 잘못되었고, 이미 지나간, 한물간 이야기이며 지난 수 십년 동안 의학계에 의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여진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경수술과 음경암을 관계짓는 연구들 역시 결론이 난 것이 없습니다. 음경암은 지극히 드문 병이며 더욱이 포경수술을 하지 않는 나라들의 음경암 비율이 미국보다 훨씬 더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음경암으로 인한 사망 비율이 포경수술로 인한 사망 비율과 비슷한 정도로 낮은 것을 보면 포경수술을 음경암 방지 방법으로 선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포경수술을 자궁암 예방책으로 선전하는 것은 실제로 암을 유발하는 인자들, 즉 흡연, 무절제한 섹스 등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해가 됩니다. 이러한 선전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1996년 2월 16일 Hugh Shingleton, M. D., Clark. Heath, Jr., M. D.

포경수술의 '포경'이란?

포경수술이란 "포경"이라는 병적인 피부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다. 그럼 포경이란 무엇인가?

포경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를 안다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문화와 상황에 따라 많이 지배되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일반적으로 포경수술을 하지 않는 유럽에서도 약 100명에 1명 꼴로는 수술을 하는 것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기도 하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언제 포경수술이 필요한 것일까? 아래 그림과 같이, 포피가 병적인 상태여서 염증이 있거나, 뒤로 젖힐 수 없는 경우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포피가 뒤로 젖혀질 수 없는 경우를 "포경"이라고 하며 바로 "포경수술"이란 말의 "포경"에 해당한다.

<성인 남성의 경우 포경이어서 수술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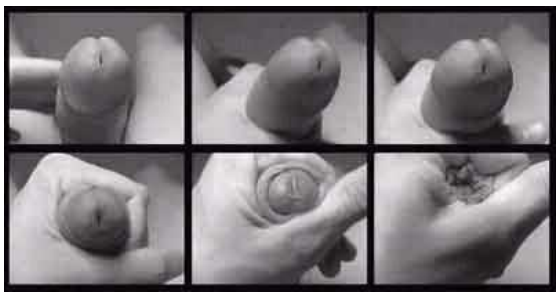
우리 나라 포경수술의 문제는 포경이 아닌 정상 상태라도 아무런 구별없이 마구잡이로 수술을 행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100명중 99명은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거꾸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다는 데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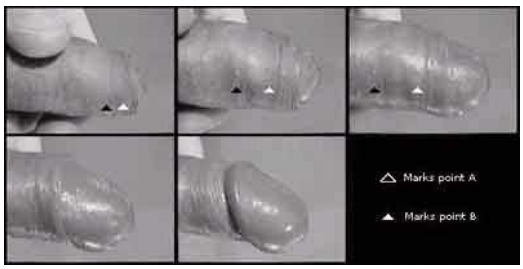
정상적 성기 발달

정상적인 성기의 발달

정상적인 경우 신생아 시기부터 사춘기 전까지는 포피와 귀두가 분리되지 않는다. 즉 어린 아이의 "고추" 형태를 지니는 것이다 (아래 그림들을 참조)

태어날 때 귀두와 붙어있던 성기는 그러다가 자라면서 점차 포피가 귀두로부터 분리된다. 그리하여 포피를 뒤로 젖힐 경우 귀두가 완전히 드러난다 (아래 그림 참조). 100명중 99명의 남성은 20세가 되기 전까지 아래 그림과 같은 이러한 정상적인 성장을 보인다. 정상적인 성기는 이와 같이 포피가 매우 잘 늘어난다. 포피 자체의 길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평상시에 포피가 귀두를 완전히 덮고 있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뒤로 젖힐 수 있는 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인인 것이다.





<정상 성기의 퇴축>

위의 그림과 같이 어른이 되면 98-99%의 경우 퇴축이 가능하다. 가끔씩 평소에 포피가 귀두를 덮고 있으면 포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완전한 오해이다. 포피의 길이가 아무리 길더라도 포경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을 상기해야 한다: **포경=phimosis=unretractable foreskin**

반면에 인구의 1-2% 정도에 해당하는 포경인 경우도 꼭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음 그림을 보자.

<정도가 약한 포경; 퇴축불가>

<"stretching excercise"후 정상 성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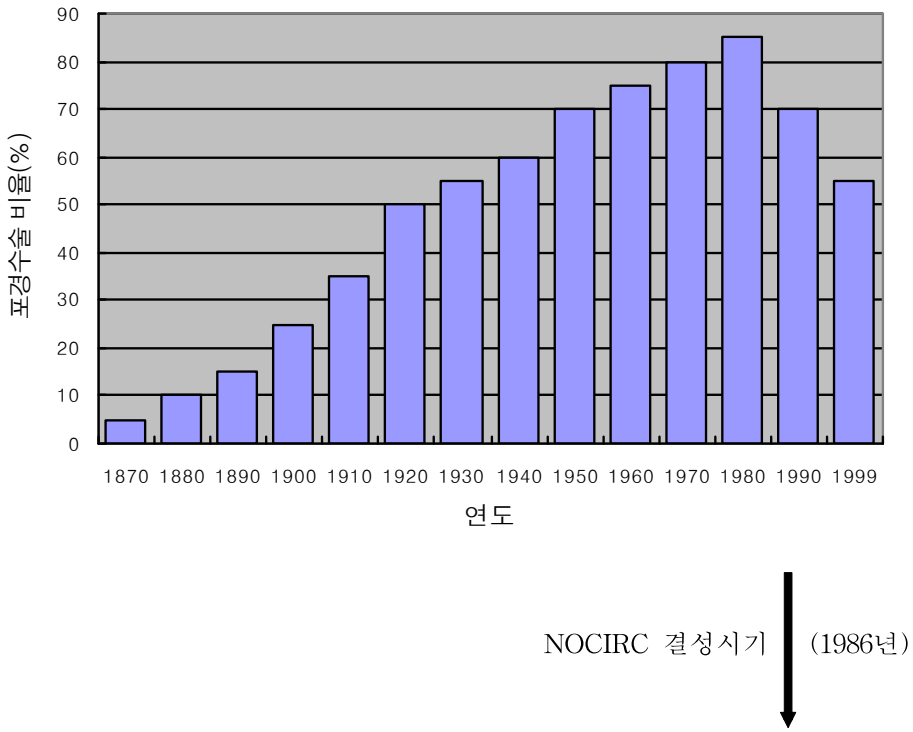
<정상성기 된 후 퇴축 가능>

이와 같이 유럽 미국 등에서는 포경인 경우라도 stretching excercise, steroid cream 등에 의하여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김대식 서울대 물리학과 부교수
1990년 U. C. Berkeley 박사
1991-1993: 미국 벨연구소 박사후 연구원
1993-1994: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 선임과학자
1994- 현재: 서울대 물리학과 조교수, 부교수

김세철 중앙의대 비뇨기과 교수
1971; 경북의대 졸업
1976; 비뇨기과 전문의
1982; 뉴욕주립대 다운스테이트 메디칼센터, 브루클린 메디칼센터 연구원
1989 - 1991; 아시아-태평양 성기능장애학회 사무총장
1996; 제3차 아시아비뇨기과학술대회 사무총장
1996 - 1997; 중앙의대 부속용산병원장
1994 - 1997; 대한남성과학회 회장
현재; 중앙의대 비뇨기과 교수
대한불임학회 회장
대한비뇨기과학회 국제교류위원장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부편집장
Asian Journal of Andrology 편집위원
한국평활근학회 부회장
국방부 의료자문관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한국일보 객원 편집위원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성교육/성상담연수 교수
국제남성과학회 학술위원
아시아비뇨기과학회 집행이사
아시아-태평양 성기능장애연구학회 집행이사
아시아-대양주 남성과학회 집행이사
저서; 남성의학(1989), 고대중국의 남과 여(1990), 남성성기능장애의 진단과 치료(1995), 비뇨기과학 (공저; 1996), 전립선질환의 모든 것(1996)
연구논문; "Norepinephrine involvement in response to intracorporeal injection of papaverine in psychogenic impotence" (1992년 미국비뇨기과학회지 발표) 외 230 여편
상훈; 대한비뇨기과학회 학술상 (1975, 1991, 1993, 1999), 유한의학저작상 (1986), 중앙대학교 학술상 (1986), 아시아-태평양 성기능장애학회 학술상 (1989)

방 명걸 (方 明杰) 의과학 박사, GenDix, Inc. CEO
박사 - 미국 Eastern Virginia Medical School에서 생식 생물학 전공
경력: 서울대학교 인구의학연구소: 연구원 - 주임연구원 (1988년 3월-1993년 12월)
Eastern Virginia Medical School: 연구조교 (1994년 9월 - 1996년 12월)
Eastern Virginia Medical School: 교육조교 (1995년 9월 - 1996년 8월)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인구의학연구소: 책임연구원 (1997년 1월-1998년 10월)
한국과학기술원 의과학연구센터: 선임연구원 (1998년 11월 - 2000년 5월)

NOCIRC (National Organization of Circumcision Information Resource Centers)란?

- 미국 소재 국제 포경수술 정보교육기관
- 세계 최대의 포경수술 정보 보유 기관
- 미국을 비롯한 세계 50 여개 국가에 지부가 있음
- UN 인정 NGO 기관 (roster status)
- 최근 미국의 포경수술 감소에 큰 기여
- 포경수술 관련 국제 심포지움 개최
- 2년에 한번 인권상 수여 (Dr. Benjamin Spock; SF 학회, Margaret Sommerville; Oxford 학회...)